

경제

# 비합법노조 “4월노사합의무효” 선언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발목 잡혔다

## 사측 “합법적 절차로 새 집행부 구성” 촉구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지난 4월 노사합의된 ‘임금협약’을 부정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물리력으로 노조를 장악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 4월22일 노사가 합의한 ‘2010년 임금협약’ 중 임금 5%·상여금 200% 반납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들은 또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 복귀 반대, 타임오프제 철회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강경파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에 파문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지난 17일 최인 사퇴한 고광석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확인 소송’에서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강경파 노조가 추진한 “제38기 대의원 선거는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대의원 선거 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을 내려, 쟁의행위를 결의한 대의원의 지위와 정당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있었다. 특히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

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강경파 노조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심리는 오는 30일 있을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파 노조원들이 양보 교섭 등을 이유로 고광석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2개의 노조가 힘겨루기를 계속해 오다 지난 6일 고광석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강경파가 노조를 장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강경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관망하던 중도파 노조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내는 등 강경파 노조의 법적 정당성 문제가 노노-노사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흑자 전환 등 경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부합리 조합원 선거를 통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노조와 책임있는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빠른시일 내에 보궐선거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러시아 공장 준공**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푸틴 러시아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주 카멘카 지역에 위치한 현대차 러시아공장(HMM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준공식에 참석, 현대차의 러시아 전략 소형차인 ‘솔라리스(베르나 모델)’을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 中企 정책자금 절반 가까이 줄어

## 창업자금 등 2조 4400억 작년보다 43% 감소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작년보다 43%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예산은 예초 계획된 3조1355억원에서 3조335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산 집행 계획이 늦어 11월께 마감되는 점에 비해 올 정책자금 예산은 3조3000억원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자금은 창업자금으로 1조1800억원, 창업 7년 이상인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등으로 1조2600억원

가량이 공급된다. 이들 자금을 포함한 전체 정책자금 규모는 작년(5조8555억원)에 비해 43.0%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창업하거나 신성장 사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투입되는 정책자금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늘었다. 지난 10일까지 올해 투입될 정책자금의 73.4%가 집행된 상태다. /연합뉴스

## 광주 백운 공공임대 등 1270가구 공급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백운 휴먼시아 5년 공공임대 808가구(조감도)와 영암 용양2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462가구를 공급한다.



광주 백운지구 공공임대의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74㎡ 92가구, 84㎡ 563가구, 115㎡ 153가구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4500만원, 38만3000원, 84㎡ 5500만원에 42만3000원, 115㎡ 9000만원에 43만1000원이며, 입주 예정은 내년 10월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5~8일 4일간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순위별로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5일, 계약 체결일은 11월9~11일 3일간이다. 문의는 LH 광주전남본부 고객상담실(062-380-0400~1)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소수출업체 직원 실무 교육 ‘광주 무역아카데미’ 개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술)는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광주무역회관 2층 무역연수실에서 ‘광주 무역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무역아카데미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임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4일부터 월~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총 4주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무역·통관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수출입 절차 및 개요, 무역마케팅, 무역계약과 인코텀즈, 관세통관, 무역운송, 대금결제, 외환실무, 무역영어 등 실전 전략 및 현장사례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무 위주 강의를 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수강료는 무역협회 회원사는 7만원, 비회원은 9만원, 학생은 무료다. 문의 062-943-94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全美 자동차 노조 물락 언급 ‘눈길’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노조 조합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23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흥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강성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미 자동차노조(UAW)의 몰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이 아닌 해외공장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 남양연구소 조합원 40명이 1차로 해외연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총 30차에 걸쳐 120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입돼 9년째를 맞은 해외연수는 올해 대상 조합원 수가 가장 많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가는 조합원 해외연수의 북미코스는 지난 2월 초 미시간대학에서 주최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세미나 관계로 각 공장의 사업부 노조대표와 다녔던 적이 있다”며 “조합원도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미국 현지공장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조달청, 소액계약 수요기관에 위임

(2000만원 미만)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 업무 급증으로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적정 계약건수(연 100건)를 3배 이상(연 330건)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계약 부실과 품질 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대부분 수요기관이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도 자체적으로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만약에 발생할 혼란에 대비, 수요기관의 구매담당 인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수요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직접 계약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달전문교육센터에서 수요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액계약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을 확대해 종합소평물을 통한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 계약 연장



기아자동차가 피터 슈라이어(사진) 디자인 총괄 담당 부사장과 계약 연장을 연장했다. 이경근 기아차 부회장은 21일(현지시간) 현대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준공식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슈라이어 부사장과 최근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을 이끌어

온 슈라이어 부사장의 1차 계약은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현대차는 북미시장을 겨냥하고 기아차는 유럽을 공략하는 쪽으로 타깃의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최근 국산 1호 ‘블루온’을 공개했지만 양산은 기아차가 맡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아차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탑재하는데 적합한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이태리 소파 전문관 오픈 30% 할인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9월29일까지



## Bastex 바스텍스 Brianform 브리안폼 MAX DIVANI 막스디바니 Chateau d'Ax 샤도락스

세계적인 이태리소파 전문관을 오픈했습니다. 바닥과 등받이가 침대처럼 확장되는 명품소파를 대중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칼라가죽, 뛰어난 복원력... 일반가구점은 흥스페이스 같은 수입원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0% 이상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신고서 확인)

주, 흥스페이스 가구빌딩(7개층/구도청 옆)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062)226-7565~7567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관이 무료 연수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제도

-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의 재직근로자
-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특징
  - \* 각종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전액 정부 지원
  - 노동부의 전액국비지원 하에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신청만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장소 및 시기 교육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실시 가능
  - \* 재직근로자의 업무향상기대
  - 중소기업의 임직원 능력개발 기회부여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정적 인력관리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 자기개발을 통한 성취감 증대
  -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문의 062) 380-8403~6 / Fax 062) 380-8443

연번	훈련 과정명	훈련 방법	훈련 일수	훈련 시간
1	웹기획&디자인	집체	5	20
2	편집출판디자인	집체	5	20
3	시각디자인	집체	5	20
4	네트워크보안실무	집체	5	20
5	Oracle 10g	집체	10	30
6	Java웹프로그래밍과정	집체	5	20
7	Frame Work개발과정	집체	5	20
8	임베디드·안드로이드 과정	집체	5	20
9	USN System개발	집체	5	20
10	LabView과정	집체	5	20
11	제품디자인	집체+현장	5	20
12	3차원설계및 치수검사	집체+현장	5	20
13	실무자를 위한 고급 Excel	집체	5	20
14	DFSS	집체	5	20
15	ERP회계모듈	집체	5	20
16	ERP물류모듈	집체	5	20
17	PM양성과정	집체	5	20
18	전략기획	집체	5	20
합 계			18개 과정	

주관 :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